



I am Sister Laura Coughlin. I've been a Sister of Charity since 1999, and have been finally professed since 2007. I first encou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in 1996 in the beloved Sister Harold Ann who was living at St. John's convent in Tucson, and was directing a large parish school there. At the time I was living on the Tohono O'Odham Indian Reservation west of Tucson and working in a volunteer capacity with the Eucharistic Missionaries of St. Dominic (now the Sisters of Peace). The joy of deepening my faith with American natives led me to deeper questions about Christ and his desire to be more intimately present in my life.

In 1997 I met Sister Mary Clark through a mutual friend and, through her, was introduced to the sisters living at OLPH in Scottsdale, Arizona, only a short walk from my apartment. After discerning for about two years with the help of Sister Patricia Marie Stack, I entered our congregation with Sister Karen Cunningham on the eve of St. Vincent de Paul's feast. Our entrance into the postulancy was the first "big event" to grace the chapel at Caritas Christi.

For most of my years since then I have enjoyed the ministry of teaching in high school, working first as a technology coordinator and teacher at Seton-La Salle (High School) in Pittsburgh, and later as a world and U.S. history teacher at Salpointe (High School) in Tucson. In 2013 I left active ministry to attend Boston College where I am now in the final year of a Master of Divinity degree. Areas of study which indulge my love of history are especially dear to me. I hope to continue into doctoral work.

My life since entering has been greatly enriched by the broad mission of the congregation. I am grateful for the everyday joy of ministry and for those special experiences which punctuate that joy with deep insights into who we are as one congregation. I count two trips to Korea as part of the work of the 2014 General Chapter, and the 2011 IECM program as examples of such special moments.





저는 로라 커글린 수녀입니다. 1999년에 입회해서 2007년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1996년, 투산에 있는 성 요한 수녀원에 살면서 그곳 본당 소속 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해롤드 앤 수녀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수녀회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 때 저는 투산 서부의 토호노 오담(Tohono O'Odham)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자원봉사자로 *성도미니코성체선교수녀회*(지금은 *평화의수녀회*로 바뀐) 수녀님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더욱 깊어진 제 신앙으로 인해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제 삶 안에 보다 친밀하게 현존하시기를 원하는 그분의 갈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친구 소개로 메리 클락 수녀님을 만나 아리조나, 스콧츠데일에 있는 OLPH에 살고 있는 우리 수녀님들을 소개받았는데 수녀원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 이후 2년 동안 페트리샤 마리 스텍 수녀님과 함께 성소 식별을 했고 성 빈첸시오 드 폴 축일 전날 캐런 커닝햄 수녀와 함께 입회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입회식은 까리타스 크리스티 성당에서 열린 최초의 '큰 행사'였습니다.

저는 주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도직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처음에는 피츠버그 씨튼-라 샬(Seton-La Salle)고등학교에서 기술교육 코디네이터와 교사로 일했고 그 다음에는 투산 샬포인트(Salpointe)고등학교에서 세계사와 미국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2013년에 보스턴 대학에 진학해서 현재 신학 석사 과정 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데 석사 과정 후 역사학 박사과정을 밟으려고 합니다.

입회 이후 수도회가 지닌 폭넓은 사명은 제 삶을 풍요롭게 해 줬습니다. 사도직을 통해 경험하는 일상의 기쁨과 하나의 수도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에 늘 감사할 뿐입니다. 2014년 전체총회를 위해 두 번 한국을 방문했고 2011년 관구간은사및선교체험에 참가했는데 참으로 제게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